

노인과 근린환경 -생태학적 모형의 적용-

이 민 아* (가톨릭대)

Lawton(1986)의 정의에 의하면 근린(Neighborhood)은 크게 지역사회, 물리적 시설 및 서비스, 거주자, 그리고 이웃과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용어로, 특히 근린시설 및 서비스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자원 및 대인적 상호작용, 그리고 인적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을 둘러싼 근린 환경의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주거지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특성에 기인하며, 실제로 노인의 상황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적응행동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Lawton의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을 적용하여 노인의 능력의 환경적 압력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노인의 환경적응 행동으로 거주형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노인의 능력에는 연령을 비롯한 7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되었으며, 환경적 압력으로는 각종 근린시설에의 근접성에 관한 인식정도로 보았다. 각종 근린시설은 노인정을 비롯하여 16개의 근린시설로 구성되었다. 거주형태는 자녀와의 동거, 혹은 별거로 분류하였으며, 현재의 거주형태와 선호하는 거주형태, 현 거주형태의 변경의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서울지역의 노인에만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166명의 단독가구 노인과 191명의 자녀와의 동거노인 등, 모두 357명의 노인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먼저 근린시설에의 근접성인식에 대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에서, 교육수준과 건강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각종 공공기관과 건강증진 시설을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낮은 노인은 노인정과 병원을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은 근린시설에의 근접성 인식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건강한 노인일수록 종교시설 및 상가시설, 식당, 공중목욕탕 등 다소 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취미/교육시설이나 유흥시설보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가깝게 인식하여, 건강이 주변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의 특성과 근린시설에의 근접성이 노인의 거주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노인의 특성 중, 낮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자립, 건강 등과 근린시설 중 유흥시설, 건강증진 시설에의 근접성은 노인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정에의 근접도가 멀수록 자녀와의 동거노인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주기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근린시설에의 인식과 거주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여가시간의 활용 및 근린시설 이용에 관한 교육, 그리고 거주형태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초록은 발표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